
족관절 외측 인대 불안정증의 동종 반건양건과 생체 흡수 나사를 이용한 해부학적 재건술

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정홍근 · 배의정 · 이성태

❖ 목적

본 연구의 목적은 족관절 외측 인대 불안정증에 대해 동종 반건양건(semi-tendinosus)을 이용하여 해부학적 재건술을 시행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추시된 단기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❖ 대상 및 방법

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본원에서 족관절 외측 인대 불안정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동종 반건양건과 생체 흡수 나사를 이용하여 전거비 인대 및 중비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평균 연령 26.8세인 10명에 대해 술 전과 술 후 VAS동통 점수와 AOFAS 기능 점수 및 Karlsson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술 전과 술 후 내반 스트레스 시 거골 경사각 및 전방 전위 정도도 방사선학적 측정 후 비교 분석하였다. 또한 술 후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였다.

❖ 결과

모든 대상 환자에서 외상 병력이 있었으며 술 전 증상 기간은 평균 35개월이었다. 평균 추시 기간은 9.8개월이었으며 수술 술기상 사용된 동종 반건양건의 평균 두께는 4.0 mm (3.5-4.5)이었으며 거골과종골에 건 고정을 위하여 평균 4.75 mm의 생체 흡수 나사를 사용하였다. 비골부에는 5예에서 봉합 나사(anchor)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주위 연부 조직에 단순 봉합술로 고정하였다. 술 전 VAS동통 점수가 평균 5.4점이었으나 술 후 1.4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($p < 0.05$) 술 전 AOFAS 기능 점수는 67.5점에서 89.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($p < 0.05$). Karlsson 점수도 술 전 49.5점에서 84.8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($p < 0.05$). 술 전 내반 스트레스 시 거골 경사각은 14.2도에서 3.7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전방 전위 정도는 술 전 32.9 mm에서 술 후 27.8 mm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90%에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. 술 후 직업 복귀시기는 평균 3.5개월이 소요되었다.

❖ 결론

본 연구를 통해서 동종 반건양건과 흡수성 나사를 이용한 해부학적 외측 인대 재건술은 육체적 활발한 젊은 연령층의 심한 족관절 외측 인대 불안정증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.